

### 김성 장흥군수, 임기 중 급여 10% 장학금 기탁

인재육성 500만원 전달

김성 장흥군수가 민선8기 임기 동안 받는 급여의 10%를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첫 기탁식을 갖고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으로서 항상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큰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며 "군수와 장학회 이사장으로 마땅한 도리를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화재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보험금으로 장학금을 기탁하는 모습과, 베풀지 못한 살림에도 장학금을 쾌척하는 지역민을



지켜봤다"며 "이러한 선의를 가진 군민과 함께 지역 인재육성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는 민선8기 공약을 통해 지역 교육발전과 기금조성 확대의 의지를 밝혔다.

현재 154억 원 규모의 장흥군인재육성 장학기금은 임기 내 2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흥=임민기 기자

## 화순, 내년도 정부 예산 '1000억 대' 국비 확보

### 현안사업 87건 총 1254억원 반영 '역대 최대 규모'

### 구북규 군수 "군 변화 위한 역점사업 본격 추진"

화순군은 26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백신·바이오 등 지역현안사업 87건(1254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2건(1260억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화순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 활성화 사업 등 64건(1084억원)이다. 또 전남도 군특전환 사업으로 확정된 23건(170억)도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백신·바이오·첨단 의료 분야가 11건 478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사업 158억원 ▲m-RNA 백신 실증 지원 기반구축 56억원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인력 양성 21억원 등이 다.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서성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1억원 ▲사평역 메타관광자원화 사업 5억원 등

11건 30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화순탄광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 활성화 사업 17억원 ▲농촌 돌봄 마을 시범단지 조성 42억원 ▲별고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 등 농촌 지역개발과 생활SOC 확충 사업 등도 대거 반영됐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구북규 화순

군수의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신정훈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군의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춘 예산 확보 전략 수립과 서울사무소의 중앙부처 실시간 자료요구 대처 등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민선 8기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적은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찾아가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우리 군의 변화를 위한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영현 기자

## 담양군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

### 5.59km 구간 4차로로 확장... 내년 실시설계 확정

국지도 60호선 담양 고서~창평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된다.

담양군은 26일 "고서면 동운리부터 창평면 오강리까지의 국지도 60호선 5.59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고서~창평 간 도로확장사업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지도 60호선 확장은 호남고속도로 창평나들목을 통과해 창평슬로시티를 찾는 방문객들이 늘고, 동원산업 물류단지 화물차량과 대박매산 새콤도사이스트(라유) 개발로 교통량까지 급증하면서 담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지난해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고

도 예산 확보를 못해 실시설계를 착수하지 못했으나 지난 9월 이병노군수가 국회를 방문해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현안사업 대응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내년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고서~창평 간 도로확장은 고서면 동운리부터 창평면 오강리까지 국지도 60호선 5.59km 구간에 총 48억원을 투입해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내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확장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 간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담양=조승채 기자

## 나주시 '명품 나주배 대전환' 비전 선포... 글로벌 브랜드 정착

### 나주시장 품질보증제, 無 생장축진제 배 생산·유통체계 구축

###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 조성·수출전문단지 육성·해외시장 개척

전국 최대 배 생산지인 나주시가 미래 100년 과수산업을 선도할 민선 8기 '고품질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발전 대전환' 비전을 선포했다.

소비자 기호 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위축된 나주배 산업을 고품질 나주배 생산·유통을 통해 부흥시키고 나주배를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명품 브랜드 과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명품 나주배 생산·유통발전 대전환 5대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선포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시의회의장, 김호진·이재태·최명수 도의원, 시의원, 나주배 생산·유통조직, 수출업

체 대표·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나주시가 선포한 5대 비전은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증제 도입', '생장축진제(GA) 무처리 배 생산·유통체계 구축', '고품질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 확대', '수출 전문단지 육성·해외시장 개척', '나주배 소비·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과제론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 생장축진제 무처리 배' 생산을 비롯해 오는 2026년까지 '생장축진제 무처리 배 계약 출하면적 900ha 확대', '신화·창조·슈퍼골드·설원' 등 우리배신 품종 배 재배면적 560ha 확대' 등을 수립했다.

또 해외 전문 바이어 확보, 해외국



가 우호 협력을 통한 '수출량 1만t 달성', '대도시권 홍보활동 강화', '나주배 지리적 표시제 관리강화', '공공기관 대상 나주배 사주기 운동 전개' 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나주시는 '나주시장 인증 나주배 품질보증제' 추진을 위해 디자인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법령, 타 지자체 사례, 배 관계자

관과의 협의를 거쳐 품질보증제 지

정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배 하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을 생산·유통하고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명품 과일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나주배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승준 기자

## 함평, 공공자원개발·공유서비스 '3년 연속 우수기관'

함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자원 개발·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자원 개발·공유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평가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서비스 홍보실적 ▲서비스 품질 개선 ▲우수시책 추진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공유서비스 이용자, 국민 평가단 등을 참여시

켜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함평군은 '2022년 공공자원 개발·공유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해 공공시설·물품,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68개의 공공자원을 '공유누리'에 추가 등록해 이용자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대표 공공자원인 엑스포공원을 활용해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을 개최하고 야간경관 조성, 군립미술관 무료 전시 등을 추진한 점이 우수시책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김홍희 기자

## 장성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국비 25억 확보

###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부예산 25억원을 국회에서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3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21억원 등을 최종 반영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사업은 2021년 질병관리청이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 사업 규모가 490억원에서 1094억원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과 전남도, 질병관리청이 차질 없는 연구소 설립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에 올라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에 사망률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 차원의 심뇌혈관질환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조기 설립 추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11월 김한중 장성군수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 전남도·장성군 관계자와 함께 KD(한국개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연구소 설립을 청원하는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타당성 재조사의 조기 통과와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이를 간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과 2023년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장성군의회도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신속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았다. /장성=심재식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